



金銅舍利塔이 統初의 作品으로 이 碑像과 同代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보다 年代가 約一世紀以上 내려가는 것으로서 漆谷 松林寺 塔塔發見의 金銅舍利塔을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兩品은 모두 方形의 工藝小塔이나 그 天蓋가 重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碑像과 同一하다. 다음에 大形品으로서 日本 奈良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 위에 걸쳐 있는

저 있는 것은 上記한 類例에서의 手法를 含蓄 略化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碑像의 年代가 七世紀 後半으로 推定되므로써 이 石造天蓋는 現存하는 最古例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天蓋樣式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後代의 宮殿 佛寺 등의 木造天蓋에서 그 系脈을 찾을 수 있는 바 다만 이들에 있어서는 瓦葺屋蓋形이나 혹은 科拱이 架構의 主要部를 이루게 되었다.

天蓋方孔의 크기

- 下段 中央孔 四 cm × 三 cm 深 三 cm 一孔만 完存
 - 下段 隅 孔 三·八 cm × 二·八 cm 深 二·六—三 cm 二個 殘存
 - 上段 中央孔 四·五—五×三 cm 深 二·七—三 cm 二個 完存
 - 上段 隅 孔 三 cm × 三 cm 深 一·七—三 cm 二個 殘存
- (上下的 中央孔이 隅孔보다 더욱 큰 것이 注目된다)

傳 善山 出土 綠釉千佛尊 磚

崔 淳 雨

木造天蓋 또는 同寺의 木造橋夫人 厨子の 天蓋를 指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韓日兩國의 遺例보다 앞서서는 中國의 石窟彫刻中에서 특히 兩魏齊周代의 天蓋帳幕拱佛龕을 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 天蓋石上面에 남아 있는 方孔은 元來 그곳에 石彫의 裝飾具를 끼었던 것으로 推定되나 그 形態는 알 수가 없다. 다만 上記한 類例中에서 찾아본다면 金銅工藝塔에서의 立狀花瓣形裝飾이나 法隆寺天蓋에서의 鳳凰 또는 奏樂天人坐像과 같은 彫飾品이 推定된다. 또 이 碑像에 남아 있는 구멍의 方向이 中央의 것이 正面하고 四隅 것이 轉角을 向하고 있는 것도 上學한 類例에서의 경우와 같다. 이 重段天蓋의 内外 各面에도 碑像身部の 四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千佛坐像이 새겨졌는데 下緣部가 屈曲을 이루어 帳幕形을 보이고 있으며 彫飾으로서 鋸齒形과 그 사이에는 連珠紋이 새겨

全忠信氏의 코락 郡에 慶尙北道 善山 郡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綠釉千佛尊 磚 斷片 두 개가 收藏되어 있다. 이 두 개가 모두 破片의 一部였고 또 出土地와 出土狀態에 對한 認見은 없었지만 이제까지 우



리나라에서 알려진 일이 없던 綠釉瓦製의 千佛尊像이라는 點으로 注意를 끌게 되었다. 이들 千佛尊像은 第一片이 高가 二五 cm 幅이 一四·五 cm 두께는 四一·二·五 cm 程度, 第二片은 高가 一一·五 cm 幅이 一〇 cm 두께는 二·三一·一 cm 의 고르지 못한 두께의 陶板으로 되어 있으며 그 表面에 押型으로 大小二種類의 如來像을 빈틈없이 찍은 것이다. 大形如來는 약간 도드라진 타원형 龕室形 안에 있으며 蓮華座 위에 結跏趺坐한 佛身 高이 七·二 cm (蓮華座包含)의 坐像이다. 이들 如來의 顔面表現은 分明치 않으나 降魔觸地의 手印을 보였고 肉髻는 도톰하며 날선한 佛身 뒤로는 寶珠形頭光과 身光이 희미하게 걸드러져 半肉彫의 고운 레리-푸를 이루고 있다. 小形如來는 上端이 도드라진 寶珠形 龕室形 안에 二重身光이 表現되었고 그 안에 희미하지만 大形如來像과 같은 降魔印으로 보여지는 高이 三 cm (蓮華座包含)의 結跏趺坐像이 蓮華座 위에 安座하고 있다. 이 如來들은 그 配列의 狀態로 보아서 그 秩序가 整齊된 것은 아니었던 듯 하며 따라서 第一片과 第二片은 相異한 配列을 보이고 있다. 이 兩片에 押捺된 大小 如來像의 配列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片은 上端部에 大形 如來像이 並列되어 있고 그 아래로 小形如來像이 二列橫行으로 三軀씩, 都合 六軀가 配置되어 있다. 이 斷片의 右端을 빼는 三面이 모두 缺失되어 있으므로 大, 小如來像의 配列原狀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이 陶板의 原形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는 없다.

第二片은 第一片의 配列과는 다른 不規則한 配列이다. 即 右端 上部에 있는 大形 如來 一軀를 둘러싸고 그 왼쪽에는 三軀의 小形如來가 거의 어금대껴서 配列되었고 그 下端部에는 斷切된 龕形의 上半部가 보이고 있다. 이들 왼쪽의 小形如來들은 大形如來像의 中間을 分界로 해서 上·下列로 나누어 適當히 配列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써 보면 그 配列의 原狀은 大形如來의 周邊에 不規則하게 小形如來들이 密集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된다. 그러나 이들 兩片에 大形如來가 어떠한 樣式으로 어떠한 數가 配列되었는지는 이 斷片으로만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知見이 期待된다고 하겠고 또 이 第二片은 四面이 모두 斷片임으로 第一片보다도 그 原形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우며 그 두께도 裏面이 脫落

되어서 얇아진 것이므로 그 두께 역시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斷片은 素地에 모래가 섞인 赭色의 胎土이며 釉裏에 가까운 部分만 이 灰色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燻造時에 表面이 還元燒成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釉調는 全般的으로 綠褐色을 나타내었고 釉質은 매우 軟弱해서 脫釉된 部分이 많으며 이러한 部分에는 굳네 굳네 綠苔로 보여지는 이끼같은 것이 着色되어 있고 또 이들 斷片은 斷切部에도 釉藥이 浸透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燻造時의 龜裂에 釉藥이 녹아서 흘러들어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龜裂 때문에 이것이 모두 斷片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中國에서는 六期時代以來 이미 數많은 千佛信仰에 關係되는 佛蹟을 남겨온 것으로 보아 宜當 우리나라에도 千佛信仰이 流傳되었을 것임으로 이에 關한 佛蹟의 出現이 期待되었던 것은 勿論이다. 多幸히 이 綠釉千佛塼의 發見에 앞서 一九六一年 七月 畏友 秦弘燮 教授가 鳥致院近郊에서 癸酉銘三尊千佛碑像(註)을 調査했던 것은 이번 新例와 아울러 이미 三國時代以來로 千佛信仰이 우리나라에 傳해 내려왔고 또 이에 따르는 佛蹟도 적지 아니 造成되었으리라는 點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綠釉千佛塼은 그 內包된 羅末風 如來像의 手法이나 羅末綠釉陶器에 類似한 釉調 등으로 보아 대개 九, 十世紀頃の 作品일 것으로 짐작된다. 元來 여기에 말린 또 하나의 小片이 있었으나 이것은 美國人 헨다-스씨가 入手해서 國外로 搬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註〕秦弘燮 歷史學報 十七, 十八合輯 所收「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資料

百濟 純金裝飾金具

黃 壽 永